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54호 / 9월 17일

실업문제 해결, 서비스산업 육성이 관건

1. 개요

- 국유기업의 정리해고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제조업 부문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바,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3차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이 시급함.
- 유통업이나 요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단순 노무직을 필요로 하는바, 이는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에 유리함.
- 전통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제와 은행대출 방면의 혜택을 통해 민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. 또한 각종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하여 이들이 신규고용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함.

2. 중국의 실업 및 재취업 현황

- 작년도 중국의 도시실업자 수는 680만 명이고, 실업률은 3.6%였음.
- 금년도 구직자 수는 기존의 실업자에다가 신규 노동력 880만 명, 정리해

고자 520만 명을 포함하여 2,000만 명이 넘음. 반면 신규 일자리는 이에 크게 못미쳐 실업률이 4.5%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.

- 실업률 상승의 원인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인력은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으나,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경우 나이, 기술수준, 학력 등의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임.
- o 정리해고자의 재취업률은 1998년 50%에 달하였으나, 2001년에는 30%로 하락하였음.

- 또한, 중국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·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도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

□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실업문제가 당면과제이기는 하지만, 향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첫째,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7% 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고, 둘째,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며, 셋째,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신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.
- o 특히,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시간제(파트타임) 고용을 늘려 통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 취업이 늘어나는 효과도 갖고 있음.

3.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

□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.

- 지난 9·5기간(1995~2000년)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은 총 2,70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음. 게다가 이중 70% 정도가 유통업, 요식업, 여행업 등 전통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였음.

- 현재 정리해고자의 대부분이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통서비스업은 매력적인 고용창출 수단으로 볼 수 있음.
- o 상해시 정부의 경우 9·5기간 도시 미화작업과 같은 단순 근로직에 16만 명을 흡수하였고, 김대중 정부도 비슷한 형태로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.

□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부문보다 민영기업의 고용효과가 크므로 민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.

- 최근 서비스분야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70% 정도가 민영기업인바,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민영기업이 정부부분에 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임.
- o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진출한 민영기업에 대해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, 은행 대출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.
- o 또한 민영기업이 정리해고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, 영업세 및 행정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할 수 있음.
- 한편, 비영리기관의 고용창출 기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육성책도 마련해야 함. 예컨대 기업이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. (***)